

“평범해서 애절한 아버지 모습 촬영 끝났어도 여운 남았죠”

MBC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서 아모개역 김상중

“죽는 신 찍다가 추운 날씨에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배우 김상중(52·사진)의 아모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답답하면서도 강렬했다.

MBC TV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초반부는 김상중이 다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퇴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별다른 대사 없이 극을 짚쳐왔다.

그가 고향길에 올라 평온하게 눈을 감으며 아내 금옥(신은정 분) 곁으로 떠날 때 텔레비전 속 김동(윤군상)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두 숨을 죽였다.

'역적' 1부가 장렬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김상중은 20일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항상 작품이 끝나면 다시 하얀 도화지로 돌아와 다음 캐릭터를 채웠는데 이번에는 계속 아모개의 잔상이 남아있고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적” 관련 글을 본다든지, 재방송을 본다든지, 아이들(후배 연기자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아직 가슴이 찢어진다”며 “심리적으로 카운슬링을 받아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워낙 극 중에서 무게감이 있던 아모개가 퇴장하고 나서 '역적'이 2막으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러나 김상중은 젊은 배우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했다.

그는 “제가 저 나이 때 저 친구들만큼 연기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역적'에서 그들이 보여줄 모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상중은 이번 작품을 통해 '재발견'한 배우

로 채수빈을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수빈 양이 맡은 가령이란 인물이 그저 김동이와 녹수(이하늬)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족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여배우인데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얼굴에 김팡을 칠하고 아모개에게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부분에서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군상에 대해선 “김동이 성황당 나무 아래서 아모개에게 '이제 힘을 못 쓴다'고 하는 부분에서 군상 군이 정말 김동이 됐구나 생각했다”며 “군상군과 함께 있으면 서로 눈가가 축축해졌다”고 칭찬했다.

아모개와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던 참봉부인 박씨 역의 서이숙을 향해선 “워낙 내용이 출중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액션과 리액션이 나오면서 옥중에서의 신 등 명장면이 연출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중은 또 아모개 캐릭터를 “우리가 평소에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데 아모개는 공기 같은 존재”라며 “아모개가 보여주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일상 속 모습이 시청자들을 울기도, 웃게도 하지 않았나 싶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아모개의 명장면으로는 조참봉의 머리를 낮으로 베고 나서 지은 백지장처럼 공허한 얼굴을 꼽았다. 왜 조참봉을 그렇게 죽여 줬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보다 먼저 찍은 탓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다.

김진만 PD도 이 장면이 대한 고민이 가장 깊었다고 전했다. 김 PD는 아모개가 해당 순간에 정의로움이나 복수의 감정 등이 아닌 금옥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길 바랐고, 김상중이 잘 담아내줘 고맙다고 밝혔다.

김상중은 명대사로써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내 맘(맘)이여” 외에 “떠돌이 흥, 본관은 익화리”를 꼽았다. 아모개 식구들에게 성(姓)을 내리는 장면이다.

그는 아모개를 통해 강렬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던 원동력에 대해선 “‘메소드 연기’의 1인자라 해주시는 것은 과분한 칭찬이고 드라마가 가진 힘 때문에 제 역할이 돋보인 것”이라며 겸손을 보였다.

그러면서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게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다”며 “비교적 편하게 연기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한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다만 팽팽한 촬영 스케줄과 추위는 김상중에게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었다고 했다.

김상중은 “아모개가 죽는 장면을 경남 합천군 황매산에서 촬영했는데 그 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죽는 신을 촬영하러 갔다가 얼어 죽을 뻔 했다”며 웃었다.

또 눈물 연기 때 콧물을 함께 흘려 더 몰입도를 높인 데 대해선 “제가 울면 비명 때문인지 콧물이 그렇게 나온다”며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연합뉴스

걸스데이 헤리, 영화 도전

‘작서의 변 : 물괴의 습격’ 출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주목받은 걸스데이의 헤리(23·사진)가 스크린에 첫 도전한다.

소속사 드림엔터테인먼트는 20일 “헤리가 영화 ‘작서의 변 : 물괴의 습격’ 출연을 확정했다”며 “헤리는 내일 첫 대본 리딩을 하고 4월 10일 첫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걸스데이가 이달 27일 새 앨범으로 컴백해 헤리는 그룹 활동 중반부터 촬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초호 감독이 연출하는 ‘작서의 변 : 물괴의 습격’은 조선 중종 22년이 배경으로 임금이 꺾여 나타난 괴물을 피해 궁을 옮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

배우 김명민이 주인공을 맡았으며 헤리는 김명민의 딸로 출연한다.

스크린 나들이는 처음이지만 헤리는 2012년 드라마 ‘맛있는 인생’을 시작으로 ‘선암여고 탐정단’, ‘하이드 지킬 나’, ‘응답하라 1988’, ‘땀따라’ 등의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자로써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성희롱 논란’ 이국주

무명배우 SNS 지적에 네티즌 ‘갑을론박’



한 무명배우가 SNS에서 개그우먼 이국주(사진)가 평소 성희롱을 자주 한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 또는 공연에 조연으로 출연해온 배우 은시우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국주가 악플러의 인신공격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기사를 링크하며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댓글로 조롱당하니까 기분 나쁘나요? 당신이 공개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 연예인들 어떨까요? 이미 고소 열번은 당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길”이라고 적었다.

은시우는 이국주가 예능프로그램에서 남성 연예인들에게 보폭을 하고 젊은 스타십을 해 논란이 됐던 것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누리꾼들도 갑을론박을 받았다. 한편에선 은시우가 지적할 것을 지적했다는 반응을, 다른 한편에선 무명배우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KBS 뉴스특보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뉴스특보	30 SBS 뉴스특보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8		00 KBS 아침 뉴스타임		
9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40 특집 SBS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30 기본 좋은 날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감성애니 하루?	00 하숙집 딸들(재)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5 TV블로그 토크 55 세상발견 유레카 스페셜
1	00 KBS광주 개국특집 3시간 특별생방송 슈에서 길을 찾다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응개 쇼나타 2	00 영재발굴단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라
7	00 KBS 뉴스7 35 리얼토크, 날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정신 이슈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취업관리 2부작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안락한 아내>	00 월화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리인 40 콘서트 필	10 특선영화 <특별수사 : 사형수의 편지>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강연 100°C (재)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요술 상자	19:55 극한직업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09:40 금쪽같은 내 새끼(재)	15:05 내 친구 아서	<심 약초꾼>
<미국 서부 트레일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20:50 세계테마기행
모뉴먼트밸리,브라이스캐니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자이언캐니언	(무말랭이 해물술방)	15:45 시계마을 토크쇼!	<불널은 간다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 두근두근 내 인생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두다다쿵	21:50 EBS 다큐프라임
07:00 레미디 비그	12:10 미스타리 휴먼 다큐(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글로벌 인재전쟁
07:30 로보가 폴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15 엄마 개구리	- 대한민국, 도약의 조건
07:45 출동! 슈퍼왕스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00 당동당 유치원1~2	- 책대로 한다(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23:35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장수의 비밀(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 책대로 한다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50 그림을 그려요?	19:00 너티너츠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15 응감한 소방차 레이	14:30 레미디비그	19:30 EBS뉴스	24:30 한국영화특집(일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1일 (음 2월 24일 丁未)

子	48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라. 60년생 일부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72년생 천신만고 끝에 난공불락을 점령하는 이치다. 84년생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75, 83	午	42년생 안배와 활용을 잘 해야 하겠다. 54년생 지저 잘못하다가 는 실기하게 된다. 66년생 기다리라. 78년생 실재가 빈틈이 없어 야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90년생 허심일 뿐이니 빨리 포기할 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2, 17
丑	49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61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73년생 목표에 성공성을 점근하고 있다. 85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16, 28	未	43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55년생 시도해보라. 67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79년생 도움을 주는 이가 있다. 91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27
寅	50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까지 수월할 것이다. 62년생 점점 복잡한 단계로 접어든다. 74년생 앞서서 걱정해 봤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86년생 길조가 넓은 국면으로 확대 되어가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07, 25	申	44년생 취득하느라, 상실하고 마느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56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68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80년생 페도나마 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28, 49
卯	51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않게 진중한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63년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75년생 잠재코만 있으면 된다. 87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5, 81	酉	45년생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돌출하는 성향에 주의해야 한다. 57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실행하기에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81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8, 21
辰	52년생 감지되는 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세를 가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매사가 순조로운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76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88년생 치질이 벗어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03	戌	46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58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잡히는 기쁨이 있다. 70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하자. 82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80, 37
巳	53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65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에 펼칠 때 오히려 압축 효과가 더 커진다. 89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행운의 숫자 : 54, 68	亥	47년생 형세가 세분화되면서 훨씬 복잡해진다. 59년생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무리가 없다. 71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83년생 때가 때이니만큼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